

2010년 전국산림경영인 하계연찬회 개최

우리협회에서는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2010년 전국산림경영인 하계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2010. 6. 15(화)~16(목)[1박 2일]

○ 장소: 경상북도 안동시

- 한국국학문화진흥원(국학문화회관)

- 유교문화박물관

- 경상북도 산림생태과학원

• 야생동물생태공원

• 산림소득숲 휴양림

- 도산서원 하회마을

○ 참석자

- 내빈(21명): 정광수 산림청장

김광림 국회의원(안동, 축전)

이삼걸 경상북도행정부지사

이창재 남부지방산림청장

김남일 경상북도 환경해양산림국장



김휘동 안동시장

서동면 산림조합중앙회 부회장

서경석 산림조합중앙회 상임감사

안호익 안동시 산림조합장

신용운 임업후계자협회 중앙회장

강구영 임업후계자협회 사무총장 외 10명

- 회원: 213명(가족 87명 포함)

서울·경기·강원 ▶ 27명

충북·충남 ▶ 23명

전북 ▶ 30명

전남 ▶ 31명

경북 ▶ 48명

경남 ▶ 54명



연찬내용

1. 하문섭 회장 개회사 (전문: 4면)
2. 정광수 산림청장 격려사 (전문: 6면)
3. 이삼걸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환영사



산이 우거져서 입산을 못함. 산림을 활용하지 않고는 지역발전 방법이 없다. 봉화에 국립수목원을 3,000억 원으로 조성, 영주에 산림테라피 단지를 만든다.

산은 도시민들의 휴양처, 관광지, 치유센터

등 산업화하기 위하여 도에 산림비즈니스과를 설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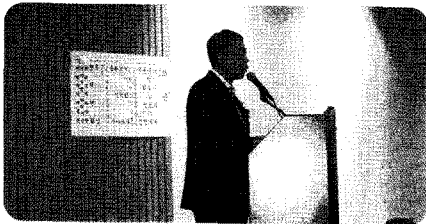
4. 김광림 국회의원(축전)

하문섭 회장님

전국산림경영인 하계연찬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연찬회를 위해 애써주신 하문섭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산림경영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임업과 산촌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김광림

5. 서동면 산림조합중앙회 부회장 축사



산림경영인들이 기후변화와 웰빙 문화현장의 중심에 있다. 특화품목지도, 사이버 경영지원 시스템 등 산림조합에서도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하겠다.

6. 김휘동 안동시장 축사



안동시는 전국 시 중에서 산이 가장 많다. 산이 완전히 녹화 되어 전체가 공원이자.

그러나 통풍이 안 되고 길이 없어 나물과 버섯 등 임산물 생산이 감소한다. 과감하게 베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산도 살고 산림소득도 증대된다.

7. 이상희 전 산림청장, 내무부장관, 건설부장관 특별강연



〈산림정책과 산림경영인의 과제〉

- 국토의 65%가 임야

- 국유 22%

- 공유 8%

- 사유 70%

이는(경제재)이다.

- 울창한 숲의 국가였다.

- 고려 원종 때 여원연합군 25,000병력으로 일본 정벌 시 900척의 큰 배를 건조

- 임진란 시기 등청정이 함경도에서 호랑이를 체포한 기록

- 우리나라 산은 참으로 아름답다.

4,000여종의 대륙성과 해양성의 식물이 동시에 자라는 계곡과 아기자기한 능선은 중국의 기형적인 계림이나 구채구에 비하랴.

춘하추동 4계절이 분명하고 지진 등 재앙도 없는 우리 국토 22만km²와 바꾸고 싶은 땅이 지구상에 어디 있나?

- 조상들도 나무와 꽃이 풍요한 좋은 국토에서 선비정신으로 살았다.

『솔밭을 지나가는 바람소리(松風)』가 제일 으뜸가는 소리요 『매화 향기는 암향(暗香)으로 귀로 듣는 향기(聞香)』라 하고 『동풍세우(東風細雨)에 복숭아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술잔을 기울여 보지 않은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둘째 아들을 분가시킬 때 동구에 느티나무 심고, 과거 급제한 아들을 기념하여 집 뒤에 회화나무를 심고, 절을 짓고는 은행나무를 심었다.

달빛이 가장 잘 드는 곳 사랑채 어귀에 매화를 심고, 안방마님의 거실 뜰에는 석류를 심어 다산(多産)을 유감주술(類感呪術)토록 하였다.

- 식물학자들은 분발해야!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진 도산매(陶山梅)와 동짓날에 피는 백강매(白江梅) 및 산청 단속사의 650년 된 단속매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 3종의 매화 후손목(後孫木)들이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일본의『세계매화공원』에는 있다.

- 산림은 엄청난 자원이다. 신품종을 만들어 소득원으로 활용해야!

스위스의 산림도 대부분 인공조림이다. 우리도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

우리 북한산이 원산지인 수수꽃다리(라일락)를 미국이 가져가서 『미스 김 나무』로 개량하여 고가품화 했고, 지구상에 1속 1종인 제주 구상나무를 미국에서 개량하여 구라과 부호들의 제일가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귀족목화(貴族木化)했으며, 백합(나리)의 원종이 우리나라에는 17종이나 있다.

- 산지 활용에 규제는 풀고 예산은 과감히 지원해야



- 산에 길을 내야 운반도하고 관찰감상도 하고 산불 방지도해야 나무축적도 늘어나고 산가치도 올라갈텐데 무엇만 하려하면 환경 파괴라고 나무 한 그루 심어 보지도 않은 자들이 싹대질 하며 애국자인양 떠들어댄다.
- 6,70년대 정부에서 과감하게 투자하여 조림했다. 이제 그 때보다 더 많은 투자로 수종도 바꾸어 임야를 소득자원화 하여 산주들의 보람을 찾아주어야 한다.
- 공기(산소)와 맑은 물의 원천은 산림이다. 연간 72조원의 공익(公益)을 공짜로 공급하고 있는데 그 일부라도 산주들에게 주어아하지 않나? 우리도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맑은 공기 내보내 주고 깨끗한 물 흘려주어 국민을 건강하게 해주며 국토를 아름답게 하고 국격을 높인다.

8. 김만제 사무관 산림시책(산주지원정책)
강의-교재별도배부

○ 기타토의 (건의사항)

서경석이사: 각도별로 년차적으로 『저목장(貯木場)』설치로 목재 수급상 산주들의 부당한 손해 방지

박도현회원: 농로와 같이 임로개설도 자유화

장달식이사: 1. 산주에게도 직불제 해야마땅
2. 별채허가된 곳에서의 굴취 자유화
3. 숲가꾸기사업입찰제때문에 적자다.

김태식회원: 6.4ha의 산지를 저수지설치로 수용하면서 35년생 리기다송 분당 2,000원 보상-재 감정 요청은 1년 후에나 가능하다하니 억울

최규한회원: 산림조합별로 정책자금용자 한도가 다르다 시정

박병옥이사: 용자 시 감정가의 70%가 아니고 공시가의 70%다. 부당하다.

최원규지회장: 담당사무관이 좀 더 치밀하게 파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가 요망된다. 모르면서 대충 처리하는 모습은 개선 되어야한다.

(의결사항)

1. 9월에 실시 예정인 1기 모델 학교는 전남 강진군 칠량면 명주리 265-4 "초당연수원"에서 9월초에 시행한다.

2. 해외연수국은 독일에서 인도네시아로 변경 실시할 것을 산림청에 건의 한다.

3. 회장단 대표 4~5명과 임업후계자협회 2~3명이 산림청을 방문 현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한다.



유교문화박물관 관람



도산서원 견학



하회마을 견학



친교

◎ 산림유공자 표창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강성우	경북지회	지회장
산림청장	최원규	충남지회	지회장
산림청장	신숙자	경기지회	이 사
산림청장	최 훈	성창기업 (봉화임무소)	대 리

산림뉴스

상기 산림유공자 4명에 대한 표창을(부상-손목시계) 정광수 산림청장께서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 2011년도 전국 산림경영인 하계연찬회 개최지 결정서 전수
아래와 같이 2011년도 하계연찬회 개최지 결정서 전수가 있었습니다.



한경협 제 2010-74호

결정서

2010년도 전국한국산림경영인 하계연찬회를 개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사단법인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사회에서 의결 결정하였기 결정서를 드립니다.

-아 래 -

- 개최지: 충청남도
- 개최시기: 2011년 6월

2010. 6.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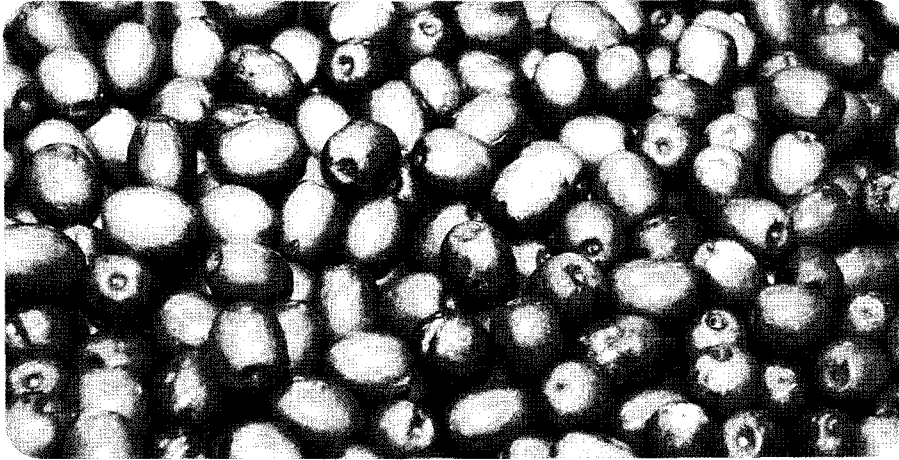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충청남도지회장 귀하

산림청, 농작물재해보험 '대추'시범사업 추진

- 산림작물 땀은 감, 밤에 이어 '대추' 품목 추가 확대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산림작물 땀은 감, 밤나무에 이어 '대추'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에 대추 시범사업 실시지역은 충북 보은, 경북 경산, 경남 밀양 등 3개 시·군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추 생산지역이며 전체 생산액의 55%를 차지한다. 앞으로 3년간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며,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대추는 내한, 내서성이 강한 작물로서 기후적응성이 매우 뛰어나 현재 강원, 경기, 충북, 경남지역 등 우리나라의 남부 및 중부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재배되고 있다. 전국 72백의 농가에서 28천 ha의 대추나무가 재배되고 있으며, 2008년도 생산액이 675억원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간식용 생대추의 수요증가로 농가소득이 향상되어 건대추 외에 새로운 소득원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대추의 농작물 재해보험이 도입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대추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림**

문 의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김철중 사무관(042-481-4194)

산림청, 임산물 수출 경쟁력 위해 수출업체·생산자 지원

- 5월 17일까지 임산물 수출선도조직 육성 지원사업 공모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최근 한-중 FTA 협상 개시 논의 등 FTA 확대에 의한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국내 임산물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표 임산물인 밤과 표고버섯 수출업체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생산설비 개선, 품질관리, 물류개선, 식품안전 확보, 해외마케팅 등 연간 3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임산물 수출선도조직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임산물 수출선도조직 육성 지원사업은 수출업체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국산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에게는 내수시장에서의 임산물 가격파동에 상관없이 해외시장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국산 임산물 수출은 수출업체간 과잉경쟁, 규모의 영세성, 수입국의 소비감소 등으로 수출실적이 악화돼 왔으며, 특히 국내 임산물 가격의 동향에 따라 수출업체의 안정적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임산물 생산자 입장에서 해외시장 판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내수시장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생산부터 출하까지 적정 수준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판로가 막힌 임산물이 저장고에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따라서 '임산물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은 이와 같은 국산 임산물의 해외수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관련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수출업체나 생산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5월 17일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팀에 접수하면 심사를 통해 2개 업체를 선발하고 선발된 업체는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산물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팀 (02-6300-149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호 산림청 국제협력과장은 "'임산물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시행 첫해인 올해는 선진국형 임산물 수출 인프라 구성에 주력할 계획이다"며, "향후 우수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내 임산물의 해외판로를 더욱 확대하고 생산 및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임산물 수출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산림**

문 의 : 산림청 국제협력과 김대환 주무관(042-481-4087)

임산물 가공·유통을 위한 산지종합유통센터 경영 정상화

- 임산물 가공·유통산업의 경기불황을 극복하고 흑자경영 발걸음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09년 임산물 가공·유통산업을 이끌어가는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경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그 동안 적자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26개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에서 321억원의 상품출하를 통해 32억원의 수익을 올려 경영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산물은 대부분 원료상태로 유통되고 소비자 역시 밤, 대추, 호두, 감 등 제수품목 또는 기호식품으로 인식되어 소비에 한계점이 있었으나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운영을 통한 다양한 임산물 상품개발 및 직거래 유통으로 소비자가 다양한 임산물 및 가공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왔다.

또한 소비가격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는 등 전략적 경영정상화 노력과 성공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경영에 안정을 찾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먹거리 임산물 산업육성을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과 경영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경영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임산물의 소비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산물 생산, 가공 및 유통, 브랜드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

문 의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이영록 사무관(042-481-4206)

산림청, 산림유전자원 해치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최근 산행인구가 급증하면서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 25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집중단속 기간동안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산림사법경찰, 산림보호감시원 등 1만 2천여명을 투입해 전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산림청은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해 동호회원을 모집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 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채취로부터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하여 중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식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산나물을 채취하지 말 것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산림**

문 의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장관옹 사무관(042-481-4246)

산림청, 2014년까지 2차 전국 산림습원 조사 실시

- 전국 국유림내 '산림습원' 91개소 692ha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산림습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4년까지 제2차 산림습원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는 부산·경남·대구·울산·제주 등 5개 광역시·도의 공·사유림 84만ha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앞으로 5년간 약 486만ha의 공·사유림을 단계적으로 조사한다.

산림습원이란 지적상 산림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모든 습지(소택지, 늪원, 이탄지)와 지적상 산림이 아니더라도 교목, 관목, 덩굴림과 같은 목본성 식물이 나타나는 소택지로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지인 독특한 지형·지세와 4계절이 뚜렷한 기후여건 등으로 인해 산림습원이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태적 영향권이

넓어 다양한 산림생물이 서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산림청은 지난 '06년부터 '08년까지 국유림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제1차 산림습원 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FGIS를 이용한 산림습지 탐색기술'(특허 10-2007-043215)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기술은 사람이 모든 지역을 답사하여 일일이 미지습지를 탐색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수분지수, 지형만곡도 등 FGIS 자료를 기준으로 1차도 습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서 인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기술이다. 산림청은 이 기술을 통해 '14년까지 총 538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06년부터 '08년까지 국유림 1,356천ha를 조사하여 발견한 275개소의 산림습원 중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91개소, 692ha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소규모 습원으로서 식생이 빈약한 지역과 일반적인 습원식생이 나타나는 지역은 이번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산림청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산림습원 중 특색 있는 습원을 살펴보면, 경남 남해군 삼동 봉화리 습원에는 끈끈이주걱·이삭귀개·땅귀개 등 습원에 생육하는 대표적인 희귀식물과 멸종위기 2급 보호종인 꼬마잠자리가 서식하고 있었으며,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산림습원은 20년생 이상의 오리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오기표 산림환경보호과장은 "2차 조사를 통해 전국의 모든 산림습원의 분포와 현황에 관한 자료를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임도 개설·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할 때 산림습원을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습원 자료의 DB화 및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과 연계한 Web 기반 조성을 통해 인터넷으로 전국의 산림내 습원에 대한 정보를 바로 볼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산림**

문 의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하경수 사무관(042-481-4241)

'나도 죽으면 수목장' 81%

- 하늘숲추모원(국유 수목장림) 개원 1년, 만족도 높아 -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지난 해 5월 20일 우리나라 최초로 경기도 양평에 문을 연 국유 수목장림인 하늘숲추모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이를 계기로 산림청이 한국궐럽에 의뢰해 하늘숲추모원에 수목장으로 고인을 모신 74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목장에 대한 선호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체 응답자의 81%가 사후에 본인도 수목장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사망시 수목장을 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82.3%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친지, 이웃 등에게 수목장을 권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83.4%로 나타났다.

하늘숲추모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77.7%로 나타났고 불만족하는 경우는 2.7%로 나타났는데, 자연환경이나 운영관리의 공신력 등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접근성이나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늘숲추모원에 수목장을 하게 된 동기는 가족이나 친지의 권유가 22.8%로 가장 많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운영·관리하기 때문이란 응답이 22%, 언론보도 등을 통해 좋은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1.7%로 그 다음 많았다.

수목장을 하게 되면 좋은 점으로는 사후에 자연과 완벽하게 동화될 수 있다는 점을 꼽은 응답자가 44.3%로 가장 많았고 자연 및 국토의 훼손이 없다는 점을 꼽은 응답자가 40.8%로 그 다음을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하늘숲추모원에 가족의 골분을 안치한 사람 전부(계약자 기준 744명)를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법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응답자는 이 중 368명이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는 $\pm 5.1\%$ p이다.

또한 산림청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하늘숲추모원은 개원 1년 만에 전체 추모목 2009그루의 38%를 차지하는 759그루가 사용계약 체결되었고 이 중 711그루에 967위의 골분이 안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견학한 사람만 3만여명에 달한다. 이 같은 수치는 사용계약 완료시까지 3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앞선 것으로 수목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유 수목장림인 하늘숲추모원 개원 1주년을 맞아 서울 홍릉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수목장, 성과와 과제 그리고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번 심포지엄에는 수목장실천회 회원, 일반시민, 산림관계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이 번 설문조사와 심포지엄 결과를 토대로 수목장림을 확대 조성해 나가는 한편, 민간단체와 함께 수목장 실천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불법·무허가 사설수목장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수목장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

문 의 :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염종호 서기관(042-481-8869)

지구를 살리는 아까시나무 신품종 출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는 서울대학교에서 육종 개발한 새로운 아까시나무 품종이 밀원공급 증진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채밀기간 단축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아까시나무는 밀원식물로서 매우 중요한 수종이다. 연간 약 2천억 원의 아카시아꿀을 생산하여 양봉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지만 개화기간이 일주일 정도로 짧아서 꿀을 채집하는 데 애로가 있다. 그런데 이번 국내에서 처음으로 꽃이 2~3일 일찍 피는 조기개화 품종과 꽃이 3~5일 정도 늦게 피는 만기개화 품종, 그리고 꿀을 두 배 정도 많이 생산하는 다밀성 품종을 개발했다.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의 이경준 교수가 15년간의 품종 개량을 통해서 이번에 위의 세 가지 품종을 개발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보호출원을 했다. 오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칠보산 학술림에 아까시나무가 만발하였는데, 이 세 가지 품종을 한 장소에 심으면 채밀기간을 두 배로 연장할 수 있고, 채밀량도 두 배 정도 늘릴 수 있어 양봉가의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국내 총 꿀 생산량 2만 7천톤중 아까시나무 꿀은 1만 9천톤을 차지하고 있다.

꿀벌은 세계적으로 과수와 원예작물의 꽃가루받이를 매개하여 식량생산에 공헌하고 있는데, 요즘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꽃이 한꺼번에 피어 채밀기간이 줄어들어 양봉가들이 큰 애로를 느끼고 있다. 꿀벌이 없어지면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아까시나무의 채밀기간과 채밀량을 늘림으로서 양봉가들이 별통을 많이 사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내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수 농사와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되는 딸기, 수박, 참외, 고추 등의 농사에는 필수적으로 꿀벌의 수분 매개가 필수적이어서 이번 개발한 아까시나무 신품종은 국내 양봉가들의 소득을 올림으로서 간접적으로 국내 과수와 원예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도 양봉산업 3,500억원 중에서 꿀 소득이 2,430억원, 이중에서 아까시나무 꿀이 1,822억원으로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양봉농가는 총 34,000농가, 양봉벌통 30만 통으로서 전국 과수원 비닐하우스에 수분작용을 하여준다. 따라서 아까시나무가 흉년이 들면 과수 등 농산물에 천문학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산림**

문 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권오웅(043-850-3324)

115개 온대수종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수목식별실습장 개장

- 산림인력개발원, 광릉숲 내에 수목식별실습장 완공 -



산림청 산림인력개발원(원장 조병철)은 산림행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목식별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산림인력개발원 내에 수목식별실습장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장한 수목식별실습장은 지난 2008년에 조성을 시작해 금년 5월에 완료한 실습장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온대수종 32개 과(科) 115개 수종을 과(科)별로 식재해 유사한 수종을 쉽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나무마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목표지판을 설치해 교육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림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앞으로 수목식별실습장을 교육생 뿐만 아니라 임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및 일반시민에게도 적극적으로 개방해 수목식별 학습의 메카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인력개발원은 연간 6천여명의 공무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근 광릉숲에서 수목식별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광릉숲에는 개별 수종이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실습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림**

문 의 : 산불훈련교육과 강성기 교수(033-253-9083)

산림청, 칩덩굴 제거해 품격 있는 숲 조성

- G20 정상회의, IUFRO 총회 등 국제행사 대비 도로변 산림 일제정비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아름답고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 전국 주요도로변과 산림에 급속히 번지면서 경관을 해치고 있는 칩, 가시박 등 덩굴류 제거에 나선다.

덩굴류는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고 심지어 나무를 죽게 만들며 결국에는 숲까지 망가뜨리는 식물로서 외래종인 가시박 등을 비롯하여 칩, 환삼덩굴 등이 대표적이다. 덩굴류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도 전국적으로 약 15만ha이며 이 중 조림지, 도로변 등 약 11만 ha의 덩굴류가 우선 제거 대상이다.

산림청은 지난 2009년부터 인공조림지를 중심으로 조림목의 성장을 방해하는 덩굴류를 제거해 왔으나, 최근 산림과 인접한 농경지의 경작포기가 늘어나면서 햇빛에 노출된 농경지나 도로변에서 발생한 덩굴류가 인근 숲으로 침범하여 산림과 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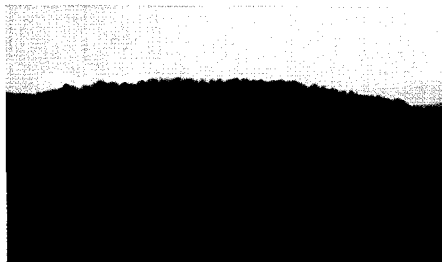
특히, 올해는 G20 정상회의, 제23차 세계산림과학대회(IUFRO세계총회) 등 국제적인 행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선진국의 국격에 걸 맞는 산림경관 조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도로변 덩굴류 제거 작업 전



작업 후



산림 내 덩굴류 제거 작업 전



작업 후

이에 따라 산림청은 주요 도로변의 덩굴류 제거를 통해 국토의 얼굴인 산림을 보다 품격 있게 정비하여 세계적인 국토녹화 성공국으로서의 자긍심을 대내외에 보여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여름철 덩굴류가 번성하기 전에 공공산림가꾸기 등 산림사업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6월부터 조기 제거작업에 착수한다.

또한 친환경적인 제거 방법을 확대하여 약제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개발된 썩는 비닐랩 밀봉처리 방법과 칩뿌리 절단기계(캔다)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윤영균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림을 잘 정비하여 우리나라 국격에 어울리는 아름답고 가치있는 숲을 만들기 위해 덩굴류의 제거가 시급하다"며, "생명력이 강한 덩굴류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끈질기고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하므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산림**

문 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 차경희 사무관(042-481-4185)